

PTSD의 self-help로서의 Bibliotherap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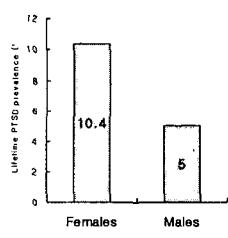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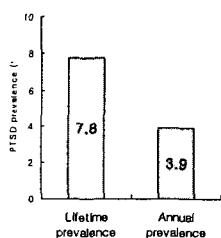


— 가톨릭대학교 —
성모병원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
정신과학교실
채정호

<http://medicine.snu.ac.kr/JCGMS/index.htm>

PTSD: 평생 유병률



Kessler 1995; Kessler 1999

불안장애: 치료 비율: UK, (n=10,108)

Any treatment:
pharmacologic or psychotherapeutic

- 8% of GAD cases (n=302)
- 14% of panic disorder cases (n=81)
- 19% of OCD cases (n=118)
- 11% of anxiety / depressive cases (n=752)
- 28% of depression cases (n=206)

Bebbington et al. Psychol Med 2000; 30: 1369-137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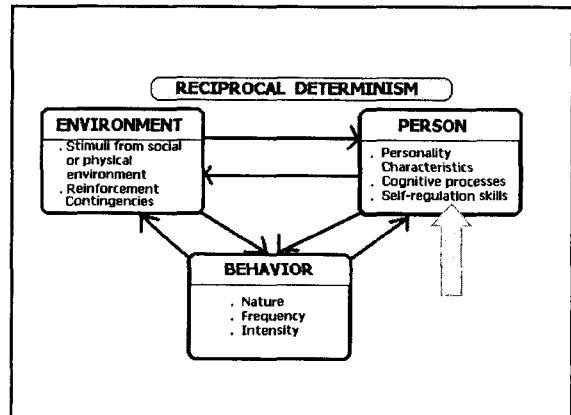
왜 치료를 받지 않는가?

-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: 58%
- 당혹스럽고, 어쩔 줄 몰라서: 20%
-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줄 몰라서: 16%
-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: 14%

Issakidis & Andrews (2002)

Self-help의 이론적 근거

- Bandura
 - Observational learning
 - Self efficacy
 - Self control
 - Self observation
 - Self evaluation
 - Self reinforcement



- Meichenbaum(1975)
 - Self instructional training
 - Coverant (mental operant behavior)
 - Adaptive self talk

Self-Instructional Training

- Meichenbaum
- "건강한 말"을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환자는 주의가 덜 산만하고 과제 수행에서도 우월
- 사고도 외현적인 행동처럼 같은 행동 전략에 의해 수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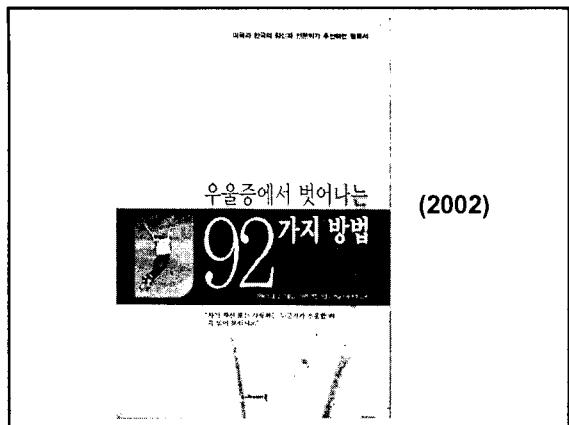
미국과 한국의 정신과 전문가는 우울증을 치료하는
방법



우울증 벗어나기

(1998)

미국과 한국의 정신과 전문가는 우울증을 치료하는
방법



상실의 Self-help

(2003)

- 산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
- 상실, 솔품, 아픔
- 응급처치법
- 행동강령
- 왜 이렇게 상실에 못 견디어 하는가?
- 상처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?
- 상실의 흉터 치유
- 성숙을 향하여...

Anxiety disorders

- PD
- OCD
- SAD
- GAD

Self-help approaches

- PTSD?

**“The Post-traumatic Stress
Disorder Sourcebook
: A guide to healing,
recovery, & growth”**

Schiraldi GR
Lowell House
2000

소개

- 필요 시 도움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
 - 전문가의 시간, 열의 부족
 - 경제적인 문제
 - 치료 자체에 대한 낙인
 - 치료 resources에 대한 정보 부족
 - 치료의 유용성에 대한 무지

도입

- 올바른 치료를 찾도록 안내
- 정보 제공
- 이 책을 resource로 이용하고, 정신과 의사와 상의하라.
- PTSD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traumatic event를 겪은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다.
- Supervision 없이 사용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.
- 해리된 내용들이 조절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으면, 필요없이 고통을 줄 수 있다.
- 회복에 책임을 지자.
- 그러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때를 알도록 하라.

- Stability
- Balance
- Order
- Health
- 안전하고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회복에 집중할 수 없다.
- 치료는 단거리 경주 라기보다는 마라톤과 같다.
- 이 책은 치유 단계를 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. 않은 단계를 그 자체가 healing이다.
- 손상된 경계를 재건하고 스스로를 돌본다는 soothing signal을 보낸다.
- 시작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를 느껴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.

From Self

- 자신을 해치지 말아라.
- 술, 약물
- 자해
- 자기 파괴적 행동
- 고통스러운 해리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 당신이 익혀온 방법일지 모른다
- 치료 자체 손상 우려
- 이것 자체의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.

From others

-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 조치
- 가해자로 부터의 분리
 - 법적인 도움
- 응급 탈출 계획 세우기.
 - 같은 곳을 미리 정해 두기
 - 친구/친척 파악
 - 짐을 싸두기
 - 72시간 응급 상황 대비 kit
 - 긴급히 대피 시 안정감
 - Emergency supplies를 안전한 다른 장소에 보관
- 집의 안전 보호
 - 자물쇠, 청설
- 자기 방어의 학습
- 주위 환경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라.
 - 도망하기, 호각 불기,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기
- 위험한 장소를 피하기 및 동반자 섭외
 - 어두운 주차장에서 경비원 동행

To others

- 폭력 중단
- 분노 조절
- 어떤 가족 구성원은 당신의 위축이나 불신만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다.
- “얼마 전에 힘든 경험을 했어요. 괜찮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래요. 만약 내가 정신이 훌어져 있거나 가끔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여도, 당신 때문이 아니예요. 회복되겠지만,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아요”라고 설명 하라.
-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감정을 교류해야 한다.

PTSD의 교육

- 무엇인가?
- 무엇이 일으키는가?
 - 외상적 사건의 예
-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?

불안과 해리

- 불안
- 생리적 증상
- 정상적 연관 기억
- 해리
- 유발인자
 -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, 신체 감각, 특징일지나 계절, 스트레스 사건, 경험 감정, 생각, 행동, 갑자기, 복합적
- 왜 해리가 일어나는가?
- 언제 해리가 일어나는가?
- 해리의 종류
- 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?
- 해리가 꼭 나쁜가?
- 해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?

연관 양상

1. 수치심, 짜증 감
2. 잘못된 추정
3. 기분장애
4. 충동
5. 충동 행동
6. 신체적 호소
7. 과잉 보상
8. 죽음에 대한 불안
9. 반복 강박
10. 자해
11. 여타 충동 및 자해 행동
12. 감정 부전증
13. 성격의 변화

FAQ

- 누가 걸리는가?
- 좀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?
- 어떤 경과를 거치는가?
- 미치는 것 아닌가?
- 결국 어떻게 되는가?
-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가?
- TBI는 무엇인가?
- 잘못된 기억은 무엇인가?

치유와 회복과 성장

- 치유의 7가지 원칙
- 1. 증상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치유가 된다.
- 2. 외상적 기억이 처리되고 통합되어야 치유가 된다.
- 3. 회피하지 알고 직면해야 치유가 된다.
- 4.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난다.
- 5. 치유는 영역이 손상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.
- 6. 친절한 인지와 감정의 수용이 치유가 일어난다.
- 7. 생의 균형이 치유에 중요하다.

감정

• 감정의 전환

- 감정을 인지하는 것
- 감정과 하나되는 것
-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
- 감정을 높이주고 보내는 것
- 깊이 바라보는 것

언제 치료를 하는가?

1. 증상이 상당한 고통의 원인이 될 때
2. 증상이 일하고, 즐기고, 어울리는 능력을 손상할 때
3. 증상이 신체적 질병을 일으킬 때
4. 증상이 1~3개월 사이에 줄어들지 않을 때
5. 자살에 대한 생각, 환각, 자신이나 남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
6.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

치료적 접근

1. 치료의 공포를 넘어서라.
2. 치료 방법을 알아라.
3. 약물, 자기 파괴적 행동 등 외상을 반복하는 행위를 그만두어라.
4. 치료자를 믿게 되면 그대로 유지해라.
5. 잘 준비만 된다면, 외상 기억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.
6. 이차적 이득을 포기해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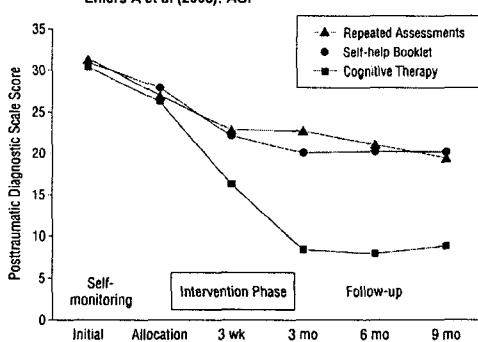
Memory processing을 하면 안될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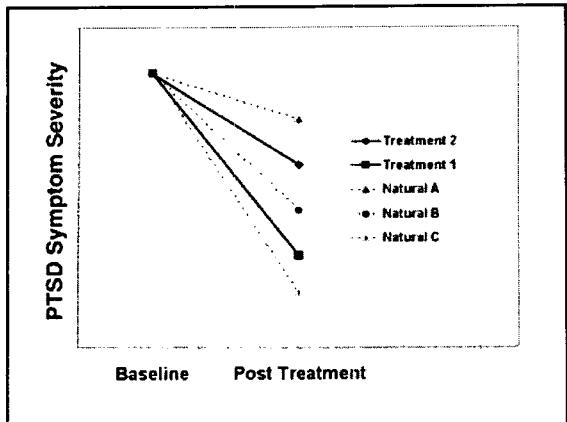
- 물질 중독
- 자기 파괴적 행동 (자해, 자살 경향, 섭식 장애)
- 폭력이나 살인 위협
- 인생의 위기 상황(trauma)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때, 학대가 진행 중일 때, 집이나 수입이 없는 때 등)
- 동반하는 심한 정신장애: 정신분열병, 양극성 장애
- 정신 건강이 overwhelmed되고 있다는 징후.

Self-help in PTSD

- PTSD에 self help가 가능한가?
- PTSD: 현재의 coping 능력이 overwhelmed 되어온 상태
- 대개 전문적 도움이 필요
- Skilled couch 의 역할
- 도움의 필요를 알고, 도움을 구하는 것은 self-esteem의 좋은 신호

Ehlers A et al (2003): AG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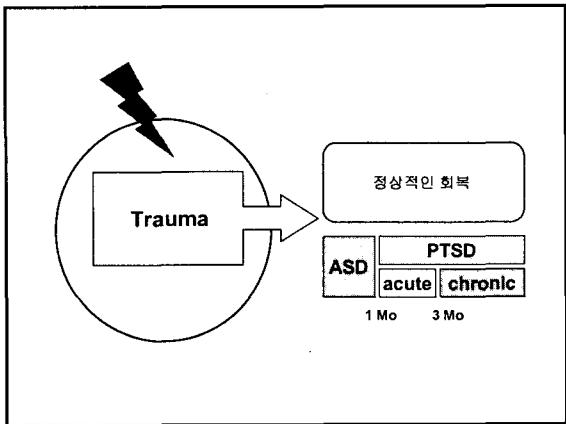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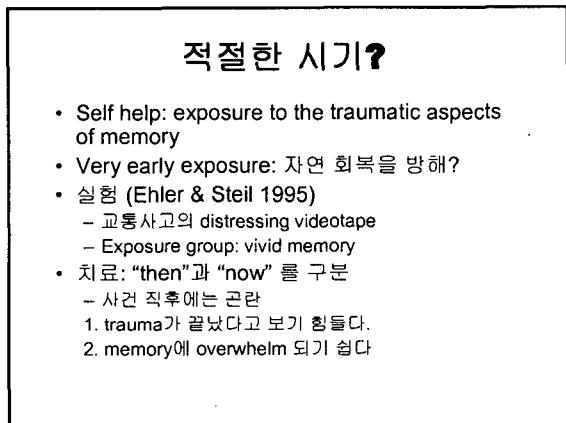
Self-help in PTS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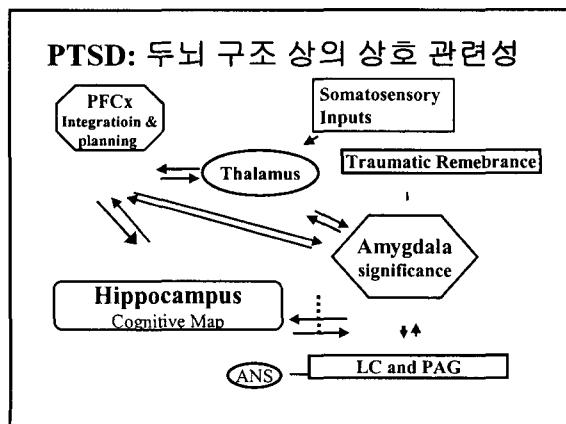
- 효과 없을 가능성
-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가능성
- PTSD 증상에 대한 부정적 해석
 - “나는 미쳐가는게 틀림없어”
 - “난 회복되지 않을거야”
 - “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다보면 미쳐버릴 거야”
 - “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배웠어, 그런데도 이런 것을 보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”

Trauma → PTSD

- *lifetime risk for PTE*
 - 60%-90% (Breslau et al., 1998; Kessler, Sonnega, Bromet, Hughes, & Nelson, 1995)
- *From PTE to PTSD*
 - 9%, at some point across the lifespan
 - (Breslau et al.; 1998)
- *Past PTSD*
 - 8%, at some point across the lifespan
 - (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; Kessler et al., 199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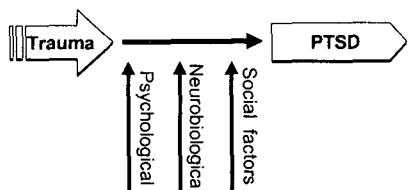




시기만의 문제인가?
: **Self-help exposure**의 한계

- 1. Rumination 시작
- 2. 치료에 충분할 정도의 exposure는 하지 않을 가능성
- 3. 적절한 도움없이 reappraise 하기 어려움.
- 4. Retraumatizing effects

Resilience vs Vulnerabil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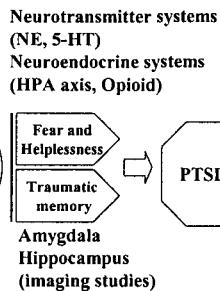


Allostatic Loads

위험군

- Mental defeat: loss of autonomy
- Trauma의 결과에 대해 지나친 부정적 평가
- Intrusive memory: "here & now" 특징, flashback
- 인지 및 행동 양태: 반추, 안전보장행동, 회피
- 신체적 결과: 부상, 통증, 건강 장애
- 부가적 trauma 및 스트레스 상황
-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반응: poor social support
- Comorbid depression

PTSD에서 Trauma 경험 처리



그렇다면...

- 초기에는 recovery 우선 접근: 잠, 안전 등
-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제공
- Trauma의 2차적 영향에 대한 접근: 직장, 대인관계
- 초기에는 평가만!
- 2-3개월 후에 아직 증상이 있다면 강력한 치료 적용
- 다른 방법의 self help advice?
- More concrete advice
- 개인적 접근과 전문적 CBT 필요
- 추후 연구 필요